

아시아교육연구 21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20, Vol. 21, No. 1, pp. 125-154.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25>

대학생의 휴학 중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조은원(趙恩苑)*

김부경(金球堉)**

배상훈(裴尙勳)***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한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학생발달 관점에서 그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A대학에 재학 중인 휴학 경험이 있는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한 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휴학 중 지적, 사회적, 자기 성찰적 경험을 한다. 구체적으로 지적 경험은 '자기주도 학습과 몰입', '현장 체험과 진로 성숙', '개별화 학습 경험과 긍정적 학업정서' 등이었다. 지적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 가치관을 확립하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은 '다양성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길렀던 인적 교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를 바꾼 문화접변 경험', 현장 전문가 교류와 진로 탐색, '큰 조직 리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사고를 확장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등 가치관이 재정립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성찰적 경험은 '무기력을 떨치고 도전해 본 경험과 작은 성취', '도전적 해외 경험과 성숙한 자아개념', '나를 되돌아본 시간과 내면적 성숙' 등이 있다. 자기 성찰적 경험은 학생들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성숙을 촉진하고 있었다. 본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휴학, 경험, 학생성공, 학생발달이론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bae@skku.edu

1.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학생의 학습 경험과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지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도모하고 높은 학업 성과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의미와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학 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휴학 경험과 그것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는 최근 휴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실제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53% 정도가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비자발적 휴학이 66.9%를 차지한다. 하지만 남녀 학생 전체적으로 취업 준비,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진로 준비를 위한 자발적 휴학 비율이 42.5%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이처럼 정형적인 대학 생활을 벗어나 자발적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교육 제도로써 휴학이란 학생이 대학을 떠나 학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박신영, 2012; 이병식, 2003). 기존 선행연구는 휴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으로 나누어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수연, 2006; 이필남, 2012; 주휘정, 차성현, 2011; 채재은, 2011). 그 밖에 노동 시장에서 휴학의 효과에 대한 연구(권용범, 2014; 변진숙, 2017), 군 휴학 이후 대학 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김선영, 2016; 김현미, 2017) 등이 수행되었다. 일부 휴학생의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성별, 계열별, 대학 유형 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휴학생이 늘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있다(강설화, 박신영, 조희숙, 한세리, 함정인, 2010; 박신영, 2012). 지금까지 휴학은 대학 부적응, 학업 중단, 중도 탈락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 기관 차원에서는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 등과 연결 지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목적은 다양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휴학을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에는 동의하고 있다(박신영, 2012; 채재은,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휴학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중요한 경험의 일부로 바라보았다. 학생들은 휴학 기간 동안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 낯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하고 색다른 경험을 시도하면서 학습을 촉진 시킨다(Panicucci, 2007). 즉, 교육적 관점에서 휴학이 학생들의 질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학이라는 울타리

를 벗어나 주로 머무는 공간이 캠퍼스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되고, 교육과정에 꼭 짜인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심리적 차원에서도 학점과 과제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심리적 여유가 생긴다. 나아가 휴학 동안 자신이 가진 시간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업을 듣고 교수를 만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넘어 보다 확장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학생발달이론에 기반 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휴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4년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휴학을 선택한 현 시점에서 휴학생은 고등교육 분야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휴학

휴학은 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를 의미한다. 중도탈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학업 중단의 여러 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병식, 2003). 초기 휴학생에 대한 연구는 휴학을 학업 중단의 관점에서 학생이 재학 중이던 대학을 떠나는 거나 (institutional departure), 고등교육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system departure)을 포함하는 개념을 취하였다(Tinto, 1975). 그러나 이처럼 휴학을 학업 중단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은 휴학생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Hoyt & Winn, 2004). 즉, 학업 중단에는 자퇴(drop-outs), 선택적 포기(opt-outs), 편입(transfer-outs), 휴학(stop-out)과 같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이유와 특징을 지닌 학생 유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Hoyt와 Winn(2004)는 휴학을 개인적 이유 혹은 대학과 관련된 문제로 등록하고 있는 대학에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등록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종류의 학업 중단과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Hoyt와 Winn(2004)의 관점을 적용하여, 휴학이란 등록한 대학에서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일정기간 후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휴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Tinto(1974)의 영향을 받아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다. 대표적으로 Tinto(1975)는 대학 내 공식, 비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교수 및 직원 등과의 상호 작용 또한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학생의 학업능력과 관심 등이 대학이 제공하는 학문적 분위기와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학문적 통합(academic integration)과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다양한 집단과 학생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루는 것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수연(1998)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학교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떠나는 휴학, 퇴학, 제적을 모두 포함해서 중도 탈락으로 정의하고, 사회학적 접근과 상호 작용 관점에서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대 소속 학생들은 교육적 포부가 높고 학문적 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나쁠수록 자퇴나 휴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학생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 중단 중이거나 앞으로 이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식, 2008).

그러나 휴학을 학업 중단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휴학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논의에 따라 휴학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Hoyt & Winn, 2004). 연구자들은 휴학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보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휴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휴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김성훈, 2010; 주휘정, 차성현, 2011). 심리적 요인이 휴학 혹은 나아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입학 초기부터 멘토 제도 혹은 지도 교수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주휘정, 차성현, 2011). 또한 학비를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만들어, 휴학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휴학 관련 기존 연구는 휴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휴학을 선택하는 원인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휴학을 중도탈락, 충원을 문제와 연계하여 기관 차원에서 휴학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휴학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대학생의 경험과 발달

1) 학생 발달 이론

대학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에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대학생들의 경험이 그들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발달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Pascarella와 Terenzini(1991)에 따르면 학생 발달 이론은 크게 심리-사회발달이론(Psycho-social development), 인지발달이론(Cognitive theory)과 개인-환경 상호작용(Person-environment interaction)으로 나뉜다.

먼저 심리-사회발달 이론에 따르면 학생은 연속적인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Chickering & Gamson, 1987; Marcia, 1966). 그들은 연령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순차적인 발달 단계를 경험한 학생은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수준의 발달을 성취하게 된다(Rodgers, 1989). 반면, 인지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Perry(1999)와 Kohlberg(1971)는 학생은 생물학적으로 결정지어진 발달과정의 틀 안에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인지작용을 반복하며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은 동화와 조절이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구조화와 재구조화를 반복하게 된다(Ginsburg & Opper, 1988). 인지발달이론에서는 구조화와 재구조화의 반복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으며,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학생의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개인-환경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학생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Astin(1984)과 Kuh(1991)은 대학 생활 중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혹은 대학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성취를 할 수 있으며 개인과 환경이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때, 학생들은 만족감과 안정을 느낀다. 구체적으로 Astin(1984)은 투입-환경-산출(Input-Environment-Outcome: I-E-O)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가지는 개인 특성을 ‘투입’이라고 보고 입학 이후에 학생이 대학에서 겪는 경험을 ‘환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을 이룬다고 보았다.

유사한 관점에서 Strange와 Banning(2001)은 대학생의 발달은 학생이 속한 대학의 물리적 환경, 인간 집합적 환경, 학생활동, 조직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환경 요인 중 대학생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학생활동을 강조하였다. Pascarella(1985)는 대학 환경, 개인의 노력,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인지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Weidman(1989)

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대학생 사회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대학 사회화 모형(Conceptual Model of Undergraduate Socialization)을 고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에서 사회화란, 대학생이 대학 경험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여 심리적·행동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Weidman(1989)은 대학 경험을 학생들이 대학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 그 자체로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이 대학 졸업 이후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개인-환경 상호작용론은 심리-사회발달론, 인지발달론에 비해 학생의 발달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학생발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적 경험의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잘 설계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지적, 정서적 성과가 있는지 탐색하였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주로 교수 또는 교우와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발달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에 집중하였다(최보금, 조성희, 2014; 홍지인, 배상훈, 2015).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 상호작용 관점에서 휴학을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환경으로 바라보고,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경험을 학생발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하였다.

2) 대학생의 경험과 발달

대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은 학습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특히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해 보는 사고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wen, 1996). 따라서 연구자들은 대학 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학생이 발달과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구조화 된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수의 질 등을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은 논리적 사고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운, 이병식, 2009; Bowen, 1996).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학생이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양질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향유하게 한다(Bowen, 1996; Kim & Conrad, 2006; Pacardlla & Terenzini, 2005). 특히 교수-학생 간 그리고 학생 간 상호작용은 고립감 및 경쟁의식을 통제하며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지적성장을 이끌어 낸다(배상훈, 박인심, 강민수, 김혜정, 김소영, 송해덕, 2014; 최보금, 조성희, 2014; Chickering & Gamson, 1987). 고장완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교류는 학문적 성장에, 학생 간 교류는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도덕 및 가치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성장 이외에도 학생 간 교류는 자아성찰, 책임감 등 개인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팀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학생들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영순, 최희, 2018).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또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신경철, 정지선, 김양선, 박은경(2008)에 따르면,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는 학생들의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수업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참여는 또한 학습몰입을 통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진로발달 역시 대학생에게 가장 주요한 발달 과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턴십 활동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턴십 활동과 같은 현장 경험이 진로 결정, 선택 등의 진로발달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2015; Brooks, Cornelius, Greenfield & Joseph, 1995) 그러나 인턴십 활동이 진로발달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만족도 및 대학 내 진로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김지영, 2015). 따라서 성공적인 인턴십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학습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턴십 외의 직업 경험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이민영, 2018; Stringer & Kerpelman, 2010). 이는 대학생들의 직업 경험이 자신의 진로와는 무관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김지영, 이민영, 2018).

한편, 학생 활동이 진로발달 외에 학생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의 국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봉사활동, 교환학생 등 해외 경험이 대학생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먼저 교환학생 등 학업을 위한 해외 경험은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및 사회·심리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지, 변기용, 2015; Maharaja, 2018). 이는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되돌아봄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각에서 자신의 문화를 평가하게 되어 글로벌 역량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경험은 자신감을 향상 시키고, 직업 및 성공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심리적 성장에 있어도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지영, 2015; 전재은, 이희영, 변수용, 2017). 그러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이전에 대학 내에서의 활동 즉, 사전 교육, 소양 및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 전 개인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발달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휴학 중에 겪는 경험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중사례연구(multi-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중사례연구는 연구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의 공통점과 맥락적 차이점을 도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답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Yin, 2003). 특히 다중사례연구는 연구 결과를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하는 목적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휴학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의 공통된 경험과 차별화 된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적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하였다(Baxter & Jack, 2008).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들은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계획과 질문지를 만들었고, 휴학을 경험한 학생 6명을 모집하여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 결과는 3명의 교수급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면담 계획 및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본 면담을 시작하였다. 모든 면담에는 박사급 연구원 2인과 연구 보조자 1인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은 휴학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11명의 학생들이며, 개별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대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빈 강의실이나 교내 카페테리아를 활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고, 이후 모두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하고, 연구의 맥락에서 떠오르는 핵심 주제를 메모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질문을 하고 보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휴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A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재적 학생 수 2만6천명으로 대형 대학에 속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문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업 성취가 높은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입학한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풍부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Patton, 1990). 또한 LeCompte와 Preissle(1993)가 제안한 ‘기준에 따른 선별법(criterion-based selection)’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 방법 역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보유 여부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휴학’의 의미를 정규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서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인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추천 받았다(network sampling). 이 방법은 면담 참여자의 개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대상자를 섭외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tkinson & Flint, 2001). 이후 추천받은 연구 대상자들, 즉 학생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심층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1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추천을 통해 면담 대상자를 섭외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집 방법의 한계로 연구 대상이 동일한 대학에 소속 되어 있어, 대학 특성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요약하면, 11명 가운데 5명은 여학생이며 나머지 6명은 남학생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명, 3학년 5명, 4학년 5명으로, 대부분 대학 생활을 2년 이상 보낸 후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다. 휴학 기간은 6개월 4명, 1년 1명, 2년 2명, 3년 이상 4명이다. 연구 참여자가 휴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진로 준비, 해외 경험, 개인적 성취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휴학을 결정하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	이름	성별	학년	전공	휴학기간	휴학사유	휴학 중 경험
1	A	여	1학년	한문교육과	6개월	이전(고등학교)과 다른 교육제도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	기초교과목(영어, 코딩) 학습
2	B	남	3학년	화학공학과	3년	대학 생활의 반복적인 사이클로 인한 매너리즘	다양한 전공이 함께하는 융합 프로그램 참여
3	C	남	3학년	영상학과	3년	진로 탐색 없는 진학으로 인한 무기력감	진로 관련 현장 경험
4	D	여	4학년	시스템경영공학과	1년	진로 탐색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전공 관련 해외 융합 프로그램 참여
5	E	남	3학년	전자전기공학부	2년	학과 내 인간관계 어려움	전공 관련 기초 학습 아르바이트
6	F	여	3학년	경제학과	6개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철학, 인문학 관련 독서
7	G	여	4학년	영상학과	2년	졸업 사정 준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준비	졸업 사정(졸업 작품) 준비 스타트업 인턴 워킹홀리데이, 해외에서 직업 체험
8	H	남	4학년	시스템경영공학과	5년	개인적 성취를 위한 해외 경험	국제 학생 포럼 조직위원장 워킹홀리데이
9	I	여	4학년	글로벌경제학과	6개월	교환학생 생활 후 학교 적응의 어려움 및 취업 준비	해외에서의 어학공부,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사교 활동
10	J	남	3학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6개월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	기초 과목 학습 다양한 전공이 함께하는 융합 프로그램 참여 아르바이트
11	K	남	4학년	글로벌경제학과	3년	취업(행정고시) 준비	행정고시 응시를 위한 고립된 학업 생활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면담은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가 휴학 중에 선택한 경험의 맥락에 따라 1) 휴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 2) 휴학 중 경험, 3) 휴학 경험 전, 후 본인에게 나타난 변화 등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물어 보았다. 면담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되었고, 이후 전사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Yin(2003)이 제시한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의미가 있는 패턴을 찾고, 발견한 패턴에 특정 이름을 붙이고(naming the categories), 이를 다시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딩은 사건과 사건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개념이 출현하면 해당 개념과 사건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찾고,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단계를 밟았다. 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 학생들이 각자 경험한 중요 사건이 의미하는 범주 혹은 범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범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category construction)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의미 있는 경험의 범주는 크게 ‘지적 경험’, ‘사회적 경험’, ‘자기 성장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원자료와 비교하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3개 범주를 기준으로 전사한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분류하고 위계화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면담 종료 후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직접 전사하여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삼각검증 방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즉 연구 책임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모여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였다.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자신의 응답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원자료와 함께 교육학을 전공 한 박사 2명에게 보여주고,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결과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연구 결과 해석에 반영하고, 필요시 수정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하에서는 학생들이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과 발달하였는지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크게 지적 경험(academic experiences), 사회적 경험(inter-personal experiences), 자기 성찰적 경험(intra-personal experiences)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지적 경험

1)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몰입: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깐”

학생들은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self-directed learning)’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례의 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학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데, 휴학을 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맘껏 하면서 학습에 몰입하는 경험을 가졌다고 답하였다. 즉 재학 중에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정작 하고 싶은 공부를 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휴학 기간에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몰입할 수 있었고, 진짜 공부하는 재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대학교 와서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건지, 학업에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느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었는데 휴학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깐 다시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E,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

아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니깐. (D,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철학, 인문학 쪽 내용들을 많이 접하면서 책을 한 권을 잡고 좀 깊게 파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학기 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게 가능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요. 휴학 하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에 파 문혀 살았어요. (F, 경제학과, 3학년)

위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은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발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경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흥미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됨으로써 학업, 진로, 인성 등 학생 발달의 내적 동력이 되는 ‘자기이해(self-concept)’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올인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깐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게 느껴지고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결심하게 됐어요. (D,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뭔가 말하는 능력이나 제 기본적인 지식의 소양?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너무 제가 가진 능력을 제가 백퍼센트 못쓰는 것 같다? 약간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노력이나 환경적으로 좀 주어지지 않아서 백 퍼센트 발휘를 못한다는 생각이..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생활하다 보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 (F, 경제학과, 3학년)

2) 현장 체험과 진로 성숙: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일부 연구 참여 학생들은 휴학 기간에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면서 전공 영역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학교 수업이 이론 위주로 현실 세계와 유리된 학습으로 느껴졌고, 전공에 대한 흥미도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휴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학 중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현장을 체험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는 다시 진로의 성숙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전공 커리큘럼이라던가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교양 수업을 왜 듣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옛날에는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꼭 들려야 하는 거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제 복학을 했을 때는 이걸 위해서 들어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개설된 거고 그거를 아니까 이제. 그 차이가 큰 거 같아요. (C, 영상학과, 3학년)

휴학 중 이루어진 현장 체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사례도 있었다. G는 그 동안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대에 맞춰 학습하고 생활했지만 휴학이라는 ‘심리적 해방’ 기간을 맞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는 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재학 중에는 주로 캠퍼스에 머물고, 제한된 사람들만 접촉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세상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의 강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도 학생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험이다. 나아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자기이해’ 경험은 복학 후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볼수록 내가 너무 일찍 결정을 했구나. 다양한 선택지가 더 있는데 사실은, 너무 초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직업 검색하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 직업만 보고 막연하게 정했던 거구나.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스타트업 인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조직생활 이런 부분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잘 맞는구나. (G, 영상학과, 4학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교양을 몇 개 들어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들으라고 하니깐 듣는 건데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부딪혀보고 하니깐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는 온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밖에 나가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내적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C, 영상학과, 3학년)

3) 개별화 학습 경험과 긍정적 학업 정서: “휴학해서 하나씩 해보니까, 행복하고”

휴학하는 일부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따라 가기 힘들었던 교육 내용을 다시 차근차근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 A와 J는 기초 교과목의 경우 특히 교수당 학생이 많은 대규모 강좌가 많아서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학점을 받기 위해 주어진 과제나 시험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토론했다. 또한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도피성 휴학’을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례 학생들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신의 학습 방법에 따라 학업을 진행하는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경험했다.

대학교 들어와서 코딩수업을 다 같이 몇 백명 모아놓고 다 같이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듣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휴학하고 특강 통해서 진짜 하나씩 하나씩 해보니까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은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고. (A, 한문교육과, 1학년)

필수 과목 어려워서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못하는데 해야 하니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휴학하고 기초부터.. 집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인강도 듣고, 특강도 신청해서 들었어요. (J,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학년)

전공 학습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공학계열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자신이 소화하기에 높은 수준의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서 학업 부진을 경험하고 이것이 자신감 상실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졌다고 토론했다. 이는 다시 ‘도피성 휴학’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는 휴학 동안 학점 같은 외적 부담이 없는 가운데 자신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면서 자신감까지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점수 맞춰 오느라 전자전기공학과에 왔는데 저랑 너무 안 맞는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잘 모르겠고,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저는 뭔가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계속 다니다 2학년 1학기에 학교를 맞았어요. 도피성으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하는 영어 시험을 쳤어요. 토익 같은거.. 자격증 공부도 해볼까 해서 공부도 하고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구요. (E,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

2. 사회적 경험

1) 다양성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길렀던 인적 교류: “다양한 학생을 만나 서로의 관점을 배우고 협업의 눈을 키우는”

다음 사례 학생들은 휴학의 목적 자체가 재학 중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캠퍼스가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분야로 분리되어 있어서 평상시 교양 수업이나 학생 활동을 통해 다른 전공 학생을 만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사례 학생은 휴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재학 중 수업과 학점 받기 위해 했던 팀 활동의 경우 보다 폭 넓은 인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전공에 따라 학생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러한 생각 차이가 지적 자극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다.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서 거의 다 저랑 다른 학과니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이런데서 배우는 게 많아서.. 나중에 혹시 대기업 가서도 공대생끼리 뉘이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연습하는 계기가 됐어요. (B, 화학공학과, 3학년)

물론 이러한 인적 교류와 태도의 형성은 재학 중에도 다양한 팀 학습과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그러나 사례 학생들의 경우, 휴학을 통해 가질 수 있었던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해 내면적 성장의 기회를 가능하게 했던 프로그램의 효과가 휴학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커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팀플 할 때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팀플 할 때는 서로 막 다 미루고.. 그 의견이 나오면 약간 그걸 관찰시키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도 다 되게 좋은 거 같고 좀 의견 교류가 훨씬 더 발전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B, 화학공학과, 3학년)

저희 캠퍼스 친구들은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것도 확실히 제한적이고 생각도 갇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고 자기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방어적으로 대하는 편인데. 여기 캠퍼스 친구들은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랑 다른 의견도 좀 수용하는데 열려있는 것 같고. (중략)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의 관점을 배우고 협업하는 눈을 키우는 경험이 됐던 거 같아요. (J,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학년)

2) 삶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를 바꾼 문화접변(acculturation) 경험: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휴학 중 해외에서 있었던 경험이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 한국을 떠나본 적 없던 I 학생은 1년의 휴학 기간에 스페인에서 지내면서 어학원,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사교 활동 등을 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과 생활한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했다.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공기업, 대기업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다면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자신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졌어요. 집이 원래 지방인데, 스페인에서 너무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렇게도 사는구나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기업 같은 거 생각하고 금융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백센 직업들을 생각했거든요. 백세고 돈 많이 벌고... 근데 스페인에서 살았던 것처럼 평생 살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학점이 4점이 넘어요. 근데 막상 자소서에는 쓸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뭐가 남을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자. 꿈은 작아졌는데 근데 이걸 우물 안으로 들어온 작아짐이 아니에요. 선택인거죠. 나는 이미 충분히 바깥 세상을 알지만 나는 성격 상 작은데 있는 게 편하다. 이런거죠. (I, 글로벌경제학과, 4학년)

마찬가지로 학생 G는 2년 동안 휴학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에 체류했다. 그 역시 적극적으로 휴학을 선택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을 찾아 나선 사례이다. 그는 실리콘밸리 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담당자와 연락한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휴학 기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면담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다. 그의 적극성은 단순한 인터넷

뷰와 영상 제작을 넘어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까지 안내했다.

저는 막 25살 취업하고 내 인생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25살 미국 유학 오시고 그때 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나 혼자 괜히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구나. 빨리 혼자 뭔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쫓겨있었구나. 미국에서 촬영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아무리 인턴 같은걸 하고 해도 한국에서는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활동하는게 한정적이잖아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하나 더 생겨버리면 진짜 한정적이게 되더라고요 (중략).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데 내가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G, 영상학과, 4학년)

위 학생들은 휴학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면적 성장을 일궈낸 사례이다. 한국 대학의 맥락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기대에 비추어 피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인 수준에서 문화접변 경험을 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압력과 프레임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자신들을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이 휴학을 통해 더 넓은 세계, 다른 문화로 나가서 시야가 넓어지고, 삶과 진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현장 전문가 교류와 진로 탐색: “답을 찾기 위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휴학 사례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문제해결 관련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 흥미, 관심 분야를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내재적 학습 동기로 이어지면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된다. 휴학이라는 기간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career exploration)’ 활동의 무대가 된 사례들이다.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저희 학교 선배가 아니어도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조언을 구해보고 얻은 정보를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을 계속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졸업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D,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면담에 참여한 사례 학생 D는 만약 자신이 휴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로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취업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쁜 학교생활은 학생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수업과 학점에 매몰되어 심도 있게 진로를 고민할 기회도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캠퍼스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무 경험과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감히 휴학을 하면서,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생기고 직접 관심 분야의 문을 두드리고 전문가와 만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휴학을 안 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몰아치듯이 했을 거예요. 취준 하는 애들도 공부같이 하면서 취준 하고 굉장히 정신없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머였나면 그렇게 하다보면 취직을 해서 회사에 갔을 때 그 회사가 자기랑 안 맞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휴학하면서 계속 그냥 고민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메일을. 거기에 답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하게도 직접 만나주신 분들도 있고. 덕분에 제가 가고 싶은 길에 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D,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4) 큰 조직 리더 경험과 자기효능감 :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학생 H는 휴학하면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멋을 알리는 국제교류 행사의 조직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행사에 몰입하기 위해 1년 휴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학생 H는 평소 큰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휴학을 결정한 사례이다. 막상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조직 대표로서 22명 조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그의 성장에 커다란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HAN ON 국제학생포럼에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1년 동안 포럼 개최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했어요. 4일간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참가자들은 매일 공통으로 대강연과 자기가 미리 신청한 두 분과의 소강연 중 하나를 들을 수 있어요. 1년 간 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22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H,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실제로 대학에서 리더십을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H 학생은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이끄는 리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진단하고, 소통과 협업의 중요함을 실천적으로 체득한 사례이다. 또한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경험(student engagement)이 ‘자기이해(self concept)’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발전으로 이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많은 선배들의 조언도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170명의 국내외 학생들이 참가했고, 20명 정도 연사들

을 섭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어요. 1년간 준비과정에서 행사기획, 연사 섭외, 홍보, 인사, 재무관리, 기업 후원까지 많은 것들을 직접 부딪치며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리더십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H,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3. 자기 성찰적 경험

1) 무기력을 떨치고 도전해 본 경험과 작은 성취: “뭘 가라도 해보자”

E 학생은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에 흥미를 잃고, 이것이 교우관계의 문제로 이어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이다. 이 학생은 2년이라는 시간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며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한다. 휴학을 결정할 당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E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휴학을 시작했다. 이 학생은 명문대 학생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지만 성취를 경험했다고 한다.

일단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부터 해봤어요. 옛날에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장에 라인 들어가서 반복 조립하는 거랑 백화점 주차장 안내를 했어요. 솔직히 돈이 없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제가 재수 실패해서 천만 원 까먹었는데 돈 주세요 하면 뭐가 아닌 거 같고, 뭘 가라도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어요. 아마 그런 게 컸던 거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해보자. (E,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

마찬가지로 J 학생도 휴학을 결정할 당시 대학생활에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학생활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 심리적으로 소진된 상태여서 휴학은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알바를 이것저것 했는데 과외 2개를 기본적으로 하구요. 학원 아르바이트 계속 하구요. 우유 배달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 배부하는 아르바이트도 했구요. 사실 전단지 돌리는 것도 했어요. (J,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학년)

E, J 사례는 모두 재학 중 학업과 인간관계 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반복된 무기력을 경험했으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다. 휴학을 하면서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심리적으로 회복하여 학교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심리적 소진과 소외를 경험했던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직접 실천해보면서 작지만 성취를 거두어

본 경험은 내면적 건강과 성장의 면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끝까지 마쳤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뜻깊었어요.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어려움도 좀 줄어들고.. 전에는 깊게 관계 하는게 싫어서 누구를 만나든 그냥 다 존댓말 쓰고.. 그래야지 뭔가 반말 쓰면 뭔가 깊어지는 거 같아서 나서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관계든지 무슨 일이든지 제가 일단 나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가만히 듣는게 아니라 저도 먼저 말을 건네 보고 화젯거리도 던져 보고 그런 식으로 노력해요. 덕분에 복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팀 활동을 하면서 상도 받고 친구도 만들고 할 수 있었어요.(E,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

2) 도전적 해외 경험과 성숙한 자아개념: “어딜 가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학생 B는 휴학을 하고 3개월 정도 홀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장기간 여행이 처음이었던 그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꼼꼼하게 일정을 계획하고 여정에 나섰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여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속출했다. 타 문화권에 경험이 없었던 그에게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B는 포기하지 않고 여정을 지속했다.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스로를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표현한 그는 낯선 환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안전지대 (comfort zone)를 벗어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마주하며, 조금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개월 정도 유럽 쪽 많이 돌았거든요. 터키로 가서 이렇게 쪽 돌고 독일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일정대로 안 되니까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지나니까 한국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리려고 여행 온 게 아닌데.. 하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후반부에 가서 이게 안됐는데 계획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틀어져도 ‘아, 뭐 다른 일 있겠지’ 하고 날렸거든요..저는 좀 계속 계획을 딱 짜놓고 그대로 사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어지면 그걸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네 그런 연습도 해보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B, 화학공학과, 3학년)

학생 H는 학생 B보다 오랜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지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며 여행 경비를 모으고 아시아-유럽-북미-남미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이었다. 그는 각 나라마다 가능한 오래 머물면서 그 나라만의 느낌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라마다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더욱 튼튼해지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죽기 전 가보기로 마음먹은 곳 중 하나인 스코트랜드의 isle of the sky에 가보고, S대학교 국제 하계

학기에서 만난 친구를 보러 체코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기, 체코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히피 친구들과 돌이서 캠핑카로 개조된 작은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기, 그 친구와 히피들의 행사인 the gathering 가 보기, 바르셀로나 친구와 함께 카탈루냐 독립 행진에도 참여했어요. 매일 매일이 새로웠던 거 같아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정처 없이 떠돌아 보니.. 어딜 가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죽지 않겠구나. 저 스스로에게. (H, 시스템경영공학과, 4학년)

위의 두 사례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해서 우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정작 대학에 와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결여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학생은 휴학을 결행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다양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들은 긴 해외 여정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앞으로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면적 자신감을 키웠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나를 되돌아본 시간과 내면적 성숙: “언제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본 연구에 참여했던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쏟아지는 과제와 교내 활동으로 온전히 자신을 생각해 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경험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하면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휴학은 ‘선택표’와 같은 것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간이 되었다.

계속 시나리오 쓰면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한두 달은 아무것도 안하다가 심심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언제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G, 영상학과, 4학년)

고시 공부를 준비했던 학생 K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학생 G처럼 긍정적이진 않았다.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고, 이는 불안함으로 이어졌다. 그는 휴학을 하고 혼자 지낸 시간이 철저하게 외로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랬던 시간이 의미 있을 수 있던 것은 자기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독려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은둔해 지내면서 되게 마음고생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내적으로 성숙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K, 글로벌경제학과, 4학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어느 한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휴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중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휴학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휴학을 학생들에게 대학 캠퍼스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정규 수업을 중심으로 교수, 교우 등 특정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색다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즉 학생들은 휴학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점 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 자유와 안정을 느끼면서, 학습할 내용과 장소를 폭넓은 선택할 자기 주도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태도를 형성하며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그 동안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회과학의 제반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 Lewin(1948) 장(場) 이론, Bandura(1986) 사회인지이론, Kegan(1994) 의식발달이론, Kuh(1991) 대학생 학습참여(student engagement) 이론, Strange & Banning(2001) 캠퍼스 생태계 이론). 이러한 이론들을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하면, 대학생도 휴학이라는 새로운 장(場)에서 맞닥뜨린 인간, 조직,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의 지적, 사회적, 내면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서 삶과 연계 된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정형화된 수업을 하면서 제한된 맥락의 이론적 지식을 배우는 캠퍼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나 시험이 없고 학점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내재적 학습 동기, 자기 주도성, 자신에 대한 이해, 긍정적 학업정서를 키우고, Super(1953)의 진로 이론이 제시한 것처럼 '진로 성숙(career maturity)'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기비하,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같은 자기이해가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아진다는 남수현과 김봉환(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휴학 기간을 활용해서 기업체 등에서 진로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면서 높은 성취를 거둠으로써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는 키우는 경험도 했다. 이는 복학 후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

졌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를 경험하게 되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켜 학습 욕구를 보다 자극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주일엽, 2013). 마지막으로 학업 부적응 때문에 휴학했던 학생들은 휴학 중 자신에게 필요한 기초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학생들은 휴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과 관련된 일련의 발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Tinto(1993)가 제시한 학업적 통합(academic integration)을 유도하고, 진로 성숙(career maturity)으로 이어져 학업 지속과 성취를 거두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휴학하는 동안 교수, 직원, 친구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면서 보다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현장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장 체험을 했던 사례도 포함된다. 한편 다른 면담 참여자들은 휴학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과 의도적으로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확장된 사고, 개방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했다. 휴학 중 해외에 체류하면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넓은 시야와 세계관, 자신감, 독립심을 키우고 이것이 자신의 진로 성숙이 높아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진로에 보다 유연하게 사고하게 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신현석, 노명순, 신윤정, 전재은, 2017; 이수지, 변기용, 2015; Maharaja, 2018). 또한 하나의 조직을 이끌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 학생 사례도 있었다. 그의 사례는 Weidman(1989)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생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학생 성과(student outcomes)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Astroth(1996)가 주장한 바와 같이, 리더십은 오히려 휴학 중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화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더불어 캠퍼스에서 벗어나 현장 전문가와 했던 풍부한 상호작용은 학생의 진로성숙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휴학 기간을 활용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다. 학생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색하고 나를 더욱 깊숙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특히 재학 중 경험한 심리적 소진(burnout) 때문에 휴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휴학 중에 자신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하면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학생의 성취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박현정, 2008;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그러나 극도의 소외와 소진을 경험했던 학생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오히려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서 이루어낸 작은 일상의 성취였다. 더불어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과 자신감은 내면적 성숙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도전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유연한 사고를 배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휴학을 통해서 경험한 내면적 성찰은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높이고 내

적으로 성숙한 자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휴학 중 지적 경험이 그들의 정서적, 학문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당면한 맥락에 따라 휴학 중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대학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 휴학을 선택했던 학생 A, E, J의 경우 기초 과목 학습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효능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다 심도 깊은 학습을 통해 몰입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 D와 F의 경우 자기 이해가 높아지면서 학업 및 진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열 별로 휴학 중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에 속한 학생 C와 G는 휴학을 통해 직업과 관련 된 경험을 하며 진로 성숙이 높아 졌다. 사회적 경험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진로와 관련 된 영역의 전문가와 교류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휴학사유 중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가 가장 높은 통계 결과를 뒷받침한다(통계청, 2018). 학년이 높아질수록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휴학을 통해 그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업(social clock)에 맞춰 스스로를 채찍질 하며 살았는데, 휴학 기간 동안 여유를 갖고 자기 성장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간은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자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가 학업과 대학생활 면에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휴학이라는 것은 학업 중단, 궤도 이탈, 대학 부적응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다.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가 휴학 이유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휴학은 새로운 지적, 인간적 환경과 심리적, 정서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것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며 성장한다. 서로가 분절되어 있지 않고 얽혀서 영향을 미친다는 ‘캠퍼스 생태계(campus ecology)’ 관점에서 볼 때, 휴학도 대학 경험의 일부이다. 게다가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휴학 중 경험은 대학 생활의 일부를 구성하고, 지적, 인간적, 내면적 성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미가 있는 경험들이었다. 이제 대학들은 휴학을 충원, 재정 확보 등의 소극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학생을 보다 잘 가르치고 키워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정책 당국은 휴학하는 학생의 특성, 휴학 사유, 휴학 중 경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늘어나는 휴학생들에 대해 구성원의 일부로서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휴학 중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휴학 중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변화를 이룬다. 그러나 복학한 후에는

학교라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게 된다. 오랜 기간 학교를 떠나 생활했던 학생들에게 학교는 다시 낯선 곳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달라진 학사 제도, 바뀐 강의실, 새로운 문화 등 학생들은 새로운 적응이 필요해진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휴학 동안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이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학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휴학이 학생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기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이 휴학이라는 비정형화 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얻은 성취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법을 통해 이룰 수 없는 성숙이며, 경험 중심 학습에 기반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휴학을 하면서 가졌던 의미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거나 졸업 요건에 포함하는 등 휴학 기간 중 이루어졌던 교육적 경험을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학사 제도 내에서 학생들의 확장된 경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강을 기존보다 앞당기고 정규 학기 수업 주수를 줄여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을 시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도전학기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휴학 경험과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례 대학에 내포된 집합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는 보다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특성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휴학 중 경험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휴학의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휴학의 효과를 탐색하기 보다는 휴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존 선행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휴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이유, 휴학 중 당면하는 이슈와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휴학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설화, 박신영, 조희숙, 한세리, 함정인(2010). 사범대 여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학술논집**, 6, 4-29.
- 고장완, 김현진, 김명숙(2011). 대학생의 학습 및 비학습 경험이 인지적·정의적 성과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9(4), 169-194.
- 권용범(2014). 휴학기간이 대졸자의 사회진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선영(2016).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2), 127-156.
- 김성식(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수연(1998).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8(2), 77-108.
-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안나, 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영순, 최희(2018). 교양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협동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6(1), 145-164.
- 김지영(2015).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75-108.
- 김지영, 이민영(2018). 대학생의 일 경험에 따른 진로발달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3), 135-157.
- 김현미(2017).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513-523.
- 남수현, 김봉환(2012).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8(1), 111-128.
- 박신영(2012). 여자 대학생의 휴학 사유와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현정(2008).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업성취간 관계의 집단간 동등성 분석-PISA 2006 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1(3), 43-67.
- 배상훈, 박인심, 강민수, 김혜정, 김소영, 송해덕(2014). **학부교육 교수, 학습 질 관리 및 제고방안 연구**. (연구보고 RR-2014-29-595호).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변진숙(2017). 대학생의 졸업연기 유형과 취업성과: 취업목적 휴학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지, 18(6), 228-236.

- 신현석, 노명순, 신윤정, 전재은(2017).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혼합방법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3(3), 225-251.
-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수지, 변기용(2015). 대학효과 이론의 관점에서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교육학연구**, 53(2), 357-387.
- 이필남(2012). 여대생의 재학기간 연장과 중도탈락 결정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207-233.
- 전재은, 이희영, 변수용(2017). 대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효과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3(2), 5-30.
- 주일엽(2013). 경호관련학과 재학생의 CPTED 현장실습 경험을 통한 진로신념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3), 240-264.
- 주휘정, 차성현(2011).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77-293.
- 채재은(2011). 대학생들의 휴학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95-317.
- 최보금, 조성희(2014).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52(3), 29-54.
- 최정윤, 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통계청(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홍지인, 배상훈(201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3(3), 351-379.
-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 Astroth, K. A. (1996). Leadership in nonformal youth group: Does style affect youth outcom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4(6), 518-529.
- Atkinson, R., & Flint, J. (2001). Accessing hidden and hard-to-reach populations: Snowball research strategies. *Social Research Update*, 33(1), 1-4.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xter, P., & Jack, S. (2008).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tudy design and

- implementation for novice researchers. *The qualitative report*, 13(4), 544–559.
- Bowen, H. R. (1996). *Investment in learning*.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Brooks, L., Cornelius, A., Greenfield, E., & Joseph, R. (1995). The relation of career-related work or internship experiences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en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3), 332–349.
- Chickering, A. W., & Gamson, Z. F. (1987). Seven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undergraduate education. *AAHE Bulletin*, 39(7), 3–7.
- Ginsburg, H. P., & Opper, S. (198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Hoyt, J. E., & Winn, B. A. (2004).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dies: Differences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NASPA Journal*, 41(3), 395–417.
- Kim, M. M., & Conrad, C. F. (2006). The impact of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on the academic success of african-american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4), 399–427.
- Kuh, G. (1991). *Involving colleges: Successful approaches to fostering student learning and development outside the classroom*. San Francisco: Jossey-Bass.
- Kegan, R. (1994).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71). Stages of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1(51), 23–92.
- LeCompte, M. D., & Preissle, J. (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Limited.
- Lewin, K. (1948). *Resolving social conflicts: Selected papers on group dynamics*. Oxford, England: Harper.
- Maharaja, G. (2018).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college students'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pers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Research and Review*, 7(2), 18–41.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Panicucci, J. (2007). Cornerstones of adventure education. In Prouty, D., Panicucci, J., & Collinson, R. (2007). *Adventure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pp.33–48)*. Illinois: Human Kinetics
- Pascarella, E. T. (1985). Students' affective development within the college environ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6(6), 640–663.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 Delhi: SAGE.
- Perry Jr, W. G. (1999). *Forms of intellectual and ethic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A scheme*. San Francisco: Jossey-Bass.
- Rodgers, R. F. (1989). *Student development. Student services: A handbook for the profess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nge, C. C., & Banning, J. H. (2001). *Educating by design: Creating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th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inger, K. J., & Kerpelman, J. L. (2010).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parental support, and work experienc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0(3), 181-200.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Tinto, V. (1974). University productivity and the organ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urke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3), 285-302.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Tinto, V. (1993). Building community. *Liberal Education*, 79(4), 16-21.
- Weidman, J. (1989). Undergraduate socialization: A conceptual approach.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5(2), 289-322.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 논문접수 2019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12월 17일 / 2차 심사 2020년 3월 2일 / 게재승인 2020년 3월 3일

* 조은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petal87@skku.edu

* 김부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bjko2@skku.edu

* 배상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행정 및 Workforce Education and Development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bae@skku.edu

Abstract

Experiences During the Leave of Absence and Their Impact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ho, Eun-won^{*}
Kim, By-kyung^{**}
Bae, Sang-hoon^{***}

This study investigated experiences that college students had during the leave of absence' and examined their effects on the students' growth and development. The study employed multi-case analysis. 11 students who had leaves of absence were selected from one university in Seou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Experiences during the leave of absence were classified into academic,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ones. First, academic experiences include self-directed learning and commitment to learning, work experiences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s and career maturity, and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s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learning. These experiences were also found to contribute to improve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integration. Second, inter-personal experiences include understanding on diversity and openness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peers, overseas experiences and the new perspectives, meeting with experts and career exploration, leadership role and self-efficacy. Finally, intra-personal experiences include challenge and the sense of achievement, matured self-awareness learned by overseas experiences, looking to the self and internal growth in min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university may consider the leave of absence becoming an environment for experiences which help students grow and develop.

Key words: Leave of absence, Experiences, Growth and Development, Student Success, College Students,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 Research Fellow, The Knowledge Center for Innovative Higher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